

나주~몽탄대교 7km 역한 냄새 진동 '썩은 강물'



3일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 몽탄대교 인근 영산강이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로 뒤덮여 있다.

영산강 일대 녹조 현장 가보니

주민 "물 고여 더 심해졌다"

승촌·죽산보도 녹조류 확인

지난 3일 오전,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 몽탄대교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20m 아래 영산강의 물빛은 어느 강과 다를 없었다. 하지만 물가로 내려가자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영산강이 녹색 빛을 띠며 넘실댔다. 수초가 있는 지점은 페인트를 쏟아놓은 듯 탁한 진녹색을 띄었다. 물에 실려온 쓰레기는 끈적이는 녹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강 위를 떠다녔다.

몽탄대교와 불과 수미터 떨어진 곳의 옛 농어촌 공사 동강지사 건물 쪽으로는 물이 고인 탓에 더욱 진한 녹조가 관찰됐다. 생선 비린내 같은 역한 냄새는 물론, 고인 물에는 녹조 사체가 흥취한 거품을 만들어 떠올라 물 위를 뒤덮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들어 녹조가 심해졌다며 불안함을 드러냈다. 몽탄대교 인근에서 M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석진(75)씨는 "갈수록 냄새도 심해지고, 잉어와 붕어 등 죽은 물고기가 떠올라 물가에 밀려올 때도 있다"며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심해졌는데, 물이 잘 흐르지 않으니 (녹조가) 심해졌는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1일,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를 진행한 광주

환경운동연합 박병인 간사는 "나주 느러지전망대부터 몽탄대교까지 영산강 7km가량에 녹조 현상이 심했다"며 "강의 종류에 비해 하류로 갈수록 유속이 느려지고, 정체 구간이 많아 녹조가 창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찾은 죽산보에도 열은 녹조가 관찰됐다. 죽산보 아래쪽에 깔아놓은 바위와 흰 돌에는 물이 흐르며 원활치 않아 사이사이마다 녹조가 무성히 끼어있었다. 취재진이 확인한 몽탄대교·죽산보 외에, 같은 영산강 줄기인 승촌보와 성산교 하류지점도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 녹조가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은 "4대강에 설치된 보가 물을 막아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데다, 고인 물에 번식하던 조류가 하류로 내려가 정체수역에서 번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장마가 끝나면 일사량 증가로 수온이 상승, 녹조가 더욱 심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영산강은 폭염·마른 장마 등 주변환경이 낙동강과 비슷함에 불구하고 클로로필-a와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이 낙동강에 비해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류류종보가 내려진 낙동강보다 훨씬 심한 녹조가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총인 처리 시설이 완공되면서,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총인(물에 녹아있는 인화합물의 총량) 수치는 다소 떨어졌다"며 "상수원과 달리 영산강은 농업용수만 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4분 해질 19시 32분 달출 04시 07분 달몰 18시 12분

우산 준비
무더운 가운데 강한 소나기 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	25/31°C
목포	구름맑음	26/31°C
여수	구름맑음	26/30°C
나주	비	25/31°C
완도	구름맑음	26/32°C
구례	비	25/31°C
강진	구름맑음	25/31°C
해남	구름맑음	26/32°C
장흥	구름맑음	25/32°C
순천	비	24/30°C
영광	비	25/30°C
진도	구름맑음	26/31°C
전주	비	26/32°C
군산	비	25/30°C
남원	비	24/32°C
옥산도	구름맑음	26/30°C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경고	보통	매우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보통	보통	매우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보통	보통	매우 높음	

◇주간날씨: 6(화) 25/33, 7(수) 25/34, 8(목) 24/34, 9(금) 25/34, 10(토) 25/34, 11(일) 25/33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5000명 넘었다

전남, 4420명...서울·경기 이어 3번째로 많아

취학 전 언어교육 위해 '예비학교' 50곳 확대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보다 683명(18.3%) 증가한 4420명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의 2%에 육박하고 있다.

4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4월1일 기준)는 지난해보다 8813명(18.8%) 늘어난 5만 576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처음 조사한 2006년 9389명이었던 것에서 7년 만에 6배 가량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0.86%에 달한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은 5620명으로(광주 1200명, 전

남 442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14명, 683명 늘었다. 특히 전남은 경기(1만2477명)·서울(8727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광주·전남 다문화가정 학생은 지난 2008년 2308명(광주 439명·전남 1869명)에서 2009년 3084명(584명·2500명), 2010년 3597명(705명·2892명), 2011년 4135명(909명·3226명), 2012년 4823명(1086명·3737명), 2013년 5620명으로 5년새 2배(143.5%) 이상 급증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세는 최근 주춤한 편이지만, 학령기 학생 수가 매년 20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커지고 있다. 학교별로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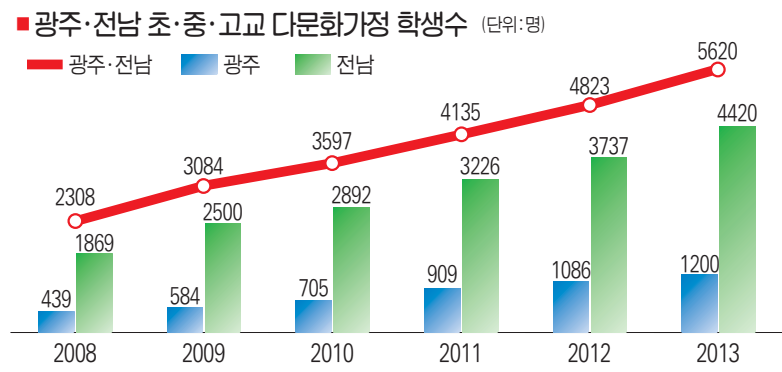
이 3만9423명(71.1%), 중학생 1만 1235명(20.2%), 고등학생 4827명(8.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생 비율이 0.9%포인트, 중학생은 0.3%포인트 감소한 대신 고등학생 비율은 1.2%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 결혼 자녀가 4만5674명(81.9%),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 입국한 국제결혼 자녀가 4931명(8.8%)이었다. 외국인 가정 자녀는 5162명(9.3%)으로 지난

해보다 배 가까이 늘어 중도 입국 자녀 수를 앞질렀다. 부모 국적은 중국(조선족 포함)이 34.4%로 가장 많고, 일본(23.4%), 필리핀(15.4%), 베트남(11.3%) 순이었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라 이들이 정규학교 입학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예비학교를 지난해 26곳에서 올해 50곳으로 늘렸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아들 성폭행 혐의 피소 가슴깊이 사죄합니다"

배우 차승원 사과

배우 차승원(43)이 아들(24)의 성폭행 혐의 피소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차승원은 지난 3일 밤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배우 차승원이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 먼저 가슴깊이 사죄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모든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 논란이 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통탄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머릿속이 사과드립니다"고 적었다. 차승원의 아들은 최근 여고생 A(18) 양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양은 고소장에서 차승원의 아들이 지난달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차승원의 아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

장마 종료 선언...중순까지 불볕더위

4일 장마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며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장마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고 중·하순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1개월 전망'에 따르면 8월 중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26~27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61~129mm)보다 적겠다. 8월 하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평년(25도)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나, 대기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은 평년(76~141mm)보다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더위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9월 상순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영포라인' 원전브로커 자격미달 업체 지원 의혹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원전 브로커 오모(55·구속)씨가 자격 미달 지원 설비업체에 대규모 정책자금에 지원되도록 정권 실세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상 밝혀질 경우 원전비리 사건은 '권력형 케이트'로 비화하며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영포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 포항지역 출신 인사들로 전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4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최고 발전용 수(수)처리 업체인 H사는 2010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 동력 육성 펀드 1호로 정책자금 642억원을 지원받았다. 산은캐피탈과 JKL파트너스가 공동 위탁운용한 이 펀드의 결성액 1600억원 가운데 40.1%가 H사에 지원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 펀드를 받을 수 없는 자격미달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Green aloe gold*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천연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력증진·장건강·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